

벤처투자, 세제·의무 전면완화 민간자금 유입·회수환경 개선

중기부, 벤처투자제도 개편 발표
7월부터 투자 의무 이행기간 3~5년
민간 벤처모펀드·개인조합 제도 손질
모태펀드 존속 연장, 하반기 절차 마련

올해부터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이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됐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를 6일 발표했다.

우선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투자자 필요했지만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초기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도 7월부터 시행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시스

또 지난해 8월초부터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췄고 이에 더해 7월부터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할 계획이다.

역시 7월부터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높인다.

이외에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40%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최대 49%까지 확대해 비수도권 기업의 벤처투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7월부터는 직접 출자 뿐만 아니라 '간접 출자'까지 포함한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 내실화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는 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

2035년까지로 규정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연장을 위한 절차는 올해 하반기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구축도 더욱 강화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매일오네’로 개인택배 시장 키운다

CJ대한통운 오네 앱 전면 개편

CJ대한통운이 주7일 배송 기반의 '매일오네'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개인택배 시장을 더욱 공략한다.

CJ대한통운은 개인 고객의 택배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택배 접수 편의성을 강화하고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오네(O-NE) 어플리케이션(앱)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오네 앱은 택배를 받는 고객을 위한 배송 조회 기능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택배 기사가 집 앞까지 찾아오는 택배 방문 접수 ▲고객 근거리에 위치한 무인 보관함 위치 조회와 예약 안내 등 '접수 고객 중심' 기능을 메인 페이지에 전면 배치했다. 이와 함께 배송조회 역시 메인 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UI)을 직관적으로 개선했다.

배송비 결제도 한층 편리해졌다. 신용카드와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탈을 활용한 간편결제 기능을 앱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추가해 기존 배송기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이체를 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CJ대한통운이 개인택배 서비스를 강화한 배경에는 택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커머스(B2C)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개인택배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과구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지난해 9월 당근마켓과 손잡고 중고거래 이용자를 위한 '바로구매' 배송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에는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전통시장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을 가정으로 배송해 주는 등 개인택배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CJ대한통운 윤재승 오네(O-NE) 본 부장은 "전국 권역의 주7일 배송 서비스를 비롯해 차별화된 배송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통시장이나 농어촌 등 전국의 모든 고객들이 편리한 생활물류 인프라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웅진그룹, 교육·산업 IT 기술력 선보여

CES 참가해 AI 에듀테크 등 공개

웅진그룹이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교육과 IT를 아우르는 기술 경쟁력을 뽐낸다.

웅진그룹은 오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교육 및 렌탈·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노스홀에 마련된 웅진 통합 부스는 웅진씽크빅의 인공지능(AI) 기반 에듀테크 제품과 웅진IT의 렌탈·모빌리티 산업용 디지털 솔루션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웅진씽크빅은 올해 CES에서 각각 혁신상을 받은 독서 플랫폼 '북스토리'와 영어 말하기 서비스 '딩고시티'로 AI를 활용한 독서·언어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 책 속 정보를 증강현실(AR)로 구현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독서 솔루션 'AR피디아', 학습자 수준에 맞춘 TOPIK(한국어능력시험) 특화 서비스 '씽크빅 토픽'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CES 2026'에 마련한 웅진씽크빅의 부스 이미지.

웅진IT는 렌탈·구독 비즈니스와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WRMS(Woongjin Rental Management System)'와 'WDMS(Woongjin Digital Mobility Solution)'를 소개한다. WRMS는 계약·수납·고객관리 등 렌탈 사업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 WDMS는 주문·인증·인도·정비처럼 딜러사의 필수 업무를 돕는 통합 서비스다. 웅진IT는 업종과 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듈형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세아윈드, '현지 모노파일' 유럽 공급망 확장

AR7 앞두고 英 해상풍력 수주전 로컬 콘텐츠 강화 정책과 맞물려 북해 프로젝트 추가 수주 기대

유럽 해상풍력 시장이 정책·지역 중심 공급망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현지 생산을 앞세워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나섰다. 영국 해상풍력 보조금 입찰(AR7) 발표를 앞두고 세아윈드가 구축한 현지 모노파일 공장이 한국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의 새로운 진입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AR7 결과는 늦어도 2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AR7은 영국 정부의 제7차 차액계약(CfD) 입찰로,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전력 가격 변동에 따른 보조금 지급·초과이익 환수 구조를 적용한다. 지멘스에너지 영국·아일랜드 담당 부사장은 AR7에서 최소 6GW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AR3(2019년·5.46GW)를 웃돈다. 업계는 AR7 낙찰 이후 모노파일 등 하부구조물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해상풍력 성장 프로그램(OWGP) 관계자들은 지난달 영국 티사이드의 세아윈드 모노파일 공장을 찾아 설비·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OWGP는 대형 모노파일 연속 생산(일관 공정) 체계와 전용 장비 구축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혼시 프로젝트 구역.

/세아제강지주

세아윈드는 영국 내 해상풍력용 모노파일 현지 생산이 가능한 유일 업체로, 수주 레퍼런스도 확보한 상태다. '노퍽 벵가드' (업계 추정 1조5000억원) 납품은 오는 2027년 말까지 진행되며, 매출은 2026~2027년에 걸쳐 순차 인식될 전망이다.

코트라는 영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해상풍력 시장이며, 누적 설비가 약 16GW로 전체 전력의 17% 이상을 차지한다고 평가했다. 영국은 2030년 50GW + 목표를 제시했다. EU도 회원국들이 해상풍력 설비를 2030년 86~89GW, 2040년 259~261GW, 2050년 356~366GW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시장조사 컨설팅 기업 베어링가는 영국의 터빈·하부구조물·항만·케이블·설치선박 등 해상풍력 공급망 전반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영국 정부는 해상풍력을 일자리·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현지 공급망(로컬 콘텐츠)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지난해 4월 3억 파운드 추가 투자에 이어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부(DESZNZ)도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총 10억 파운드 투자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세아윈드는 이 같은 현지화 기조에 맞춰 영국 정부와 MOU를 맺고 현지 모노파일 생산 거점을 구축했으며, 북해 프로젝트 확대에 따라 추가 수주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한국엔컴퍼니, 실전형 AI 인재 육성 나서

KAIST·UNIST·POSTECH 주최 AI·데이터 경진대회 공식 후원

한국엔컴퍼니그룹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포항공과대학교(POSTECH)가 주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사이언스 경진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국내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약 280명의 학생이 지원해 7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과정은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실제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제했다. 참가자들은 유한요소법(FEM)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와 설계 데이터를 활용해 타이어 불량률을 예측하고, 비용을 고려한 시험 생산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했다.

평가 결과, 대상은 RPM팀이 수상해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RPM팀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고도화된 AI 예측 모델을 구현했으며, 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학생들이 실제 산업 데이터를 다뤄볼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미래 디지털 인재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